

2020 국별 진출전략

우즈베키스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외환규제 완화 및 금융개방 정책 지속	4
나. 정부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개발전략 추진 확대	4
다.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정책 추진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8
다. 산업 환경	9
라. 정책·규제 환경	12
2. 시장 분석	14
가. 시장 특성	14
나. 교역	15
다. 투자	19
라. 프로젝트	19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1
가. 교역	21
나. 투자	2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5
III. 진출전략	27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7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8
3.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3
4. 진출 시 유의사항	38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9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0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1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부 록	
對우즈베키스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3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에도 우즈베크 경제는 5% 내외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전망

- 세계은행, IMF 등 세계 주요 경제기구와 우즈베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이 2019년에 5%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성장률(전망) - 세계은행 : 5.3%, IMF : 5.5%, ADB : 5.2%, 우즈베크 정부 : 5.0%

- 이러한 고성장은 농업과 섬유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신정부의 개혁·개방 기조에 바탕
 - (2017년) 환율 단일화 및 외환 자유화 조치를 통한 금융환경 개선
 - (2018년) WTO 가입 재추진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정책 발표
 - (2019년)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방 지속, 국내산업 및 정부구조 개혁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30.5	31.0	31.4	31.9	32.4	32.8	33.2
명목 GDP	십억 달러	63.1	66.9	67.1	48.6	51.9	53.1	60.7
1인당 명목GDP	달러	2,069	2,159	2,132	1,522	1,601	1,618	1,828
실질성장률	%	7.8	8.0	7.8	5.3	5.0	5.2	5.4
실업률	%	9.0	8.9	8.9	-	5.0	5.0	5.0
소비자물가상승률	%	6.4	5.5	5.6	14.4	14.3	13.8	11.9
재정수지(GDP대비)	%	0.3	0.2	0.1	0.3	-0.2	-1.1	-1.2
총수출	백만 달러	14,109	12,871	12,568	13,894	11,386	12,923	14,667
(對韓 수출)	"	27.3	16.1	20.7	18.1	22	-	-
총수입	"	13,959	12,416	12,114	13,013	18,252	19,895	21,686
(對韓 수입)	"	2,032	1,284	927	1,180	2,139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50	55	454	880	-6,867	-6,973	-7,019
경상수지	"	900	-160	-84	-	-3,577	-2,773	-3,119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422	2,810	3,231	8,120	8,071	8,648	8,527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39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2	10.6	-	-	-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EIU, IHS,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World Bank(해외직접투자), KITA(대한(對韓) 수출입)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외환규제 완화를 비롯한 금융개방 정책 지속
- 경제 관련 부처 신설 등 정부 개편을 통한 국가개발전략 추진 확대
- 자동차, 섬유, 에너지 분야 등 국가 주도의 산업개편

가. 외환규제 완화 및 금융개방 정책 지속



외환자유화 추가조치 시행 및 외환 시장 자율화 기조 지속

- 우즈벡 정부는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로 2019년 8월 20일부터 일일 환율 변동폭 제한($\pm 0.5\%$)을 폐지하고, 일반인의 외화매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2019년 8월)
- 동 발표에서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과 재무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9년 7~8월에 있었던 급격한 환율 상승의 대외적 원인은 세계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달러의 상대적 강세 때문이며, 대내적 원인은 대외개방이 확대되고 무역대금 결제가 용이해지면서 수입은 증가한 반면 주요 수출상품(농산물, 원자재)은 가격이 하락하여 무역적자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숄/달러 : (2017.9.5) 8,110 → (2018.12.31) 8,341 → (2019.6.30) 8,568 → (2019.8.20) 9,384
- 시장에서 일부 우려 중인 화폐개혁(Denomination) 및 외환통제 가능성에 대해 중앙은행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환율은 외환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2019년 8월)



고액권 발행 및 신규 금융 서비스 도입

- 우즈벡 중앙은행은 숄화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10만 숄권을 발행(2019년 2월)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16% 수준으로 물가상승률(13~14% 수준)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는 금리 중심의 안정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발표
- 중앙은행은 산하에 'National Inter-Bank Processing Center'를 신설하여 카드결제 서비스인 'HUMO'를 출시(2019년 4월). 여기에는 30개의 우즈벡 민간은행이 참여하였으며, 마스터카드와 연계하여 해외결제 기능도 도입

나. 정부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개발전략 추진 확대



국제정책 관련 정부부처 개편 또는 신설

- 경제부를 경제산업부로 확대 개편(2019년 1월)하고 산하에는 세계은행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청을 신설(2019년 8월)하여 중소기업 사업 환경 개선 업무를 담당

- 투자위원회와 대외무역부를 통합하여 투자대외무역부를 설립(2019년 1월)하고, 투자정책 수립·이행, 해외투자유치, 국제금융기구 및 공여국 협력, 대외무역 및 국제경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한편, 산하에 △관세·비관세규제위원회, △외국투자유치청, △기술개발청 3개 기관을 신설
* 투자대외무역부 산하에는 한국 투자진출 기업을 전담하는 Korean Desk 설치(2019년 5월)
- 에너지부 및 교통부를 신설(2019년 2월)하고, △전력, △난방, △석탄, △원유, △천연가스, △석유가스 제품,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담당을 총괄하기로 하며, 교통부에는 도로교통위원회, 민간항공청, 도로건설공사감독청, 조선등록청, 우즈베크항공운항청 등을 산하기관으로 편입

국가개발전략 확대

- 국가 발전과정에 대한 전면적 평가 및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과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채택한 『2017~2021년 국가개발전략(2017년 2월)』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2019년 1월)
 - 동 시행계획의 5대 중점 방향은 ① 공공행정 및 국가 체제 개선, ② 법치주의 강화, ③ 경제성장 지속 및 경제 자유화, ④ 사회 안전망 개선, ⑤ 안보 강화
 - 이를 위해 국가개혁 로드맵 이행 경제위원회를 설립(2019년 1월)하고 △경제개혁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이를 통해 경제산업부와 투자대외무역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국가개발전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별 발전전략도 수립하기로 함
* 수자원·관개분야 발전전략(2020.8.31), △국가연금제도 개혁안(2019.12.31), △금융부문 발전구상(2020.5.31), △환경보호 로드맵(2020.8.31) 등

다.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정책 추진

자동차 생산능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

- 우즈베크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 가속화 방안’(대통령결의-4397)을 발표(2019년 7월)하고, 2024년까지 자동차(승용) 연간 35만 대 생산, 연간 10만 대 수출, 부품 국산화율 60%까지 제고, 트럭·버스 연간 1만 대 생산 등을 추진
* 2018년 기준, 우즈베크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연간 22만 대 수준
-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를 개편하고 보상판매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 2019년 10월부터 △UzAuto Motors 생산 차량에 대한 소비세(3%) 폐지, △국산 신차에 대한 구입세(3%) 폐지(생산업체 부담 예정), △보상판매 개시 등을 시행
 - UzAuto에 대해서는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 없이 경매를 통해 비전략 자산 및 산하기업 매각이 가능하며, 해외 파트너와 신차 생산을 위한 협상을 2019년 내 확정
 - * 자동차 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29%(2017년)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5%, 2019년 3%로 인하



섬유산업 수출 개선 및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 ‘섬유방직산업 수출 개선 추가방안’을 발표(2019년 2월)하고 2019년 4월 1일부터 내각 산하 기업 발전지원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은행 숨화 대출이자를 지원함. △완제품 생산을 위한 실·천·원자재 등 구입 시에는 이자(숨화)의 25%, △생산 현대화를 위한 건물·설비 구입 시에는 대출 이자의 50%까지 지원
- ‘2019~2025년 섬유방직산업 발전구상’을 수립(2019년 5월)하여 2019년 목화 수확기부터 국제가에 상관없이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VAT를 부과하고 △섬유제품 생산·수출 확대, △제품경쟁력 제고, △2025년 섬유수출 70억 달러 달성을 추진



재생에너지 이용법 제정을 통한 에너지산업 다각화

- 우즈베크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법’을 제정(2019년 5월)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원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첨단기술 도입 촉진, △발전 시설 확충 위한 민간투자유치, △발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국제협력 강화 등 추진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안정 이후, 국가발전개혁 및 외교관계 개선에 속도
- (경제) 높은 성장률(5% ↑)과 높은 물가상승률(15%대) 상존
- (산업) 주요 산업인 자동차, 농업, 섬유에서 전방위적 개혁 실시
-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WTO 가입을 염두에 둔 국제 표준화 정책 도입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집권 안정 후, 지속적인 국가발전개혁 추진

- 국가개혁로드맵 이행 경제위원회를 설립(2019년 1월)하고 향후에는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개혁·개방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
- 주요 목표는 경제개혁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안 마련,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 △부처별 경제개혁 이행활동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
- 이후 경제위원회를 통해 △투자여건 개선 로드맵(2018년 3월), △2030 우즈베크 사회경제 발전구상(2018년 3월), △통화정책 강화 및 가격 안정화 구상(2018년 9월), △토지 이용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로드맵(2018년 10월 31일), △국영기업 개혁전략(2019년 6월), △국가 디지털 경제 발전 전략(2019년 11월), △국가연금제도 개혁(2019년 12월), △국가교육 발전전략(2020년 2월), △금융부문 발전구상(2020년 5월 31일), △수자원·관계분야 발전전략(2020년 8월), △환경보호 로드맵(2020년 8월) 계획 등을 수립

우즈베크 신정부의 7개 개혁방향

- ① 성과가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도 미흡한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대출 지원 재검토
- ② 국가 통화 및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대출정책의 새로운 규제방안 도입
- ③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식품·소비재 생산업자 지원 및 농업개혁
- ④ 사회적 필수재에 대한 가격 결정제도 전면 재검토 및 거래소 입찰을 기반으로 한 자유경쟁 환경 조성
- ⑤ 취약층에 대한 사회보장 개선 및 전기·가스·공공서비스 정부보조 채택
- ⑥ 국내 미생산 소비재에 대한 탄력적인 수입관세 시스템 도입
- ⑦ 경제상황이 열악한 27개 도시의 발전을 위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 우즈벡 정부는 기 추진 중인 '2017~2021년 국가발전 액션전략'에 따라 주요 부문의 프로젝트에 16.9조 슝의 정부재원 추가투입 결정



CIS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경제협력을 적극 확대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협력관계가 긴밀한 주변국과 연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WTO 가입에 대한 지원 및 주요 전략산업(제약, 전자, 관광,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

* 2017년 터키, 2018년 미국, 이집트, 인도, 2019년 한국, 독일, UAE 등

- 우리나라와는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방한하여 총 89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총 12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제안하고 10여 개의 산업협력 MOU를 체결

* 한-우즈벡 산업협력 MOU 체결분야 : 무역투자협력, 경제특구 운영 노하우 전수, 섬유, 스마트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농기계, 에너지 효율 향상, 정유 공장 및 전력산업 분야 현대화

- CIS 국가에 대해서는 2014년 무관세 협정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수입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와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나. 경제 환경



환율 상승 및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연 5%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신정부의 개혁·개방에 힘입어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우즈베키스탄 GDP 성장률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 성장률	8.0	7.8	5.3	5.1	5.0

자료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2019년은 전망치



물가상승률은 지난 2017년 이후 연간 15%대 내외를 기록

-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의 원인은 전통적으로 주요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수출은 국제 시세 및 작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과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우즈베키스탄 물가상승률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물가상승률	5.5	5.6	14.4	14.3	13.8

자료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2019년은 전망치

다. 산업 환경

산업개괄

-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2차 산업의 연간 총 생산규모는 2,281억 슝으로 제조업이 76.6%, 광공업이 16.1%, 전기·가스·유틸리티가 6.4%, 기타가 0.9%를 차지
- 2018년의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세부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3.2%, 광공업이 25.4%, 전기·가스·유틸리티가 4.1%, 기타가 22.6% 증가
- 광공업 분야에서의 주요 천연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스 부산물, 모래·자갈 등이 있으며 원유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와 석탄은 각각 6.1%와 3.4% 증가

우즈베키스탄의 2018년 주요 천연자원 생산량

구분	단위	생산량	증감
원유	천 톤	746.4	-8.1%
천연가스	백만 입방미터	59,842.2	6.1%
석탄	천 톤	4,174.4	3.4%

자료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말보고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완성차 생산기업인 UzAuto(전 GM Uzbekistan)의 2018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한 213,285대로 집계

* 2019년 6월 '자동차산업 발전 가속화 방안'에 따라 사명 변경(GM Uzbekistan → UzAuto)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완성차 기업

- (UzAuto) 2007년 자동차공업성(Uzavtosanoat)과 GM의 지분 각각 75%와 25%로 설립. 라보, 스파크, 넥시아, 코발트, 라세티, 말리부 등의 차량을 생산하며 우즈벡 자동차 시장의 약 90%를 점유
- (SAM Auto) 1999년 중형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차공업성 58%, Asaka Bank 26%, Itochu, Isuzu(일본) 각각 8%의 지분으로 설립
- (MAN Auto) 2009년 화물 트럭 생산을 위하여 자동차공업성과 MAN Group이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

- UzAuto 이외에는 러시아 브랜드인 LADA 자동차의 2018년 대(對)우즈벡 수출이 전년 대비 357% 증가하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총 수출대수는 2,650대로 이는 카자흐스탄(1.3만 대)과 벨라루스(1.0만 대)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숫자
-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부품 수입품목은 기어, 차체, 서스펜션, 브레이크패드 등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부품 하위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HS Code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553,944	577,298	866,973
870899	기타	262,836	400,819	589,647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54,212	115,647	161,479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12,855	14,189	29,713
870880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	4,643	10,132	14,134
870830	브레이크패드	5,548	8,944	13,981
870870	로드휠과 그것의 부분품	4,866	5,380	13,185
870850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등	1,544	2,783	11,802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4,567	6,427	9,118
870894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등	1,685	4,600	7,970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	1,503	2,298	4,452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1,756	2,178	3,865
870895	에어백과 그 부분품	65	1,068	2,944
870821	안전벨트	631	1,734	2,762
870810	자동차용 완충기와 부분품	774	1,099	1,921

자료 : ITC Trade map

- 국가별로는 2018년 기준,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부품 1위 수입국이며 이외에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벨라루스, 5위 브라질 순
- 우리나라의 순위가 높은 것은 과거 대우자동차 진출 시 동반 진출한 부품 협력사들이 한국으로 부터 CKD, DKD를 위한 원부자재 수입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부품(HS Code 8708)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순위	수입국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357,484	577,239	866,976
1	한국	323,346	523,590	769,723
2	중국	9,829	15,893	24,415
3	러시아	2,685	4,181	11,692
4	벨라루스	403	148	10,484
5	브라질	141	2,223	9,108
6	이탈리아	481	1,270	7,526
7	폴란드	750	2,123	4,121

8	독일	1,978	2,658	3,144
9	키르기스스탄	5,794	8,598	2,051
10	슬로바키아	353	1,480	2,020

자료 : ITC Trade map

- 우즈벡 정부가 내수 진작 및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부여해오던 면세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함에 따라, 우즈벡 자동차 기업들의 마진 확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UzAuto는 2018년 한해 10~16% 원가인하를 통해 약 7,000만 달러의 부품 수입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 (2019년 2월)
- UzAuto는 ‘2030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중장기 전략 및 주요 모델별 생산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2019년 2월)
 - 국내의 저가모델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1만 달러대 세단, 1.5만 달러대 CUV 모델을 생산하며, 고급 차종 확대를 위해서는 트래버스(Traverse), 이쿼녹스(Equinox),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 등 중대형 SUV를 출시
 - 또한 프랑스 PSA(Peugeot Citroen Automotive)와 추진하던 상용차 합작공장 설립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고 발표

농업

-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총 농업생산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99.5조 슝 규모이며, 세부 비중으로는 작물 및 목축업이 97.1%, 산림업이 2.4%, 어업이 0.5%를 차지(면화 제외)
- 농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물 및 목축업 분야는 분류상으로 곡물, 감자, 채소류, 과일류 등을 포함하며 주요 생산량 및 증감률은 곡물(637만 톤, -12.5%), 감자(275만 톤, -1.6%), 채소류(963만 톤, -5.7%), 그리고 과일류(259만 톤, -1.0%) 등
- 2018년의 목화 생산량은 2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9.7%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즈벡 정부가 정책적으로 목화 생산량을 줄이고 밀이나 과일 재배 등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
- 우즈벡은 경쟁력을 보유한 우즈벡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개선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법인의 경우 수출대금 사전 지급, 신용장 개설 없이 과채류 수출 허가(단, 수출대금이 적시에 입금되지 않으면 100% 선금 지급 요건 적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매 무역 라이선스 없이 과채류 수출이 가능
 - 이외에도 정부는 이들 품목의 수출에 대해 간이 통합세제 적용 및 통관검사 면제 등 수출 절차도 간소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 수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겨울철 주요 신선채소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온실 재배를 장려

- 온실 재배 주요 대상작물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으로 이들은 수요는 일정한데 반해 보관이 어려워 여름과 겨울의 가격차가 50배 나는 경우도 발생
- 온실 수요 확대 및 한-우즈베키 농기계 R&D 센터 건립(2017년 9월), 한-우즈베키 농기계분야 협력 MOU 체결(2019년 4월)에 따라 온실 관련 기계·설비, 저장시설, 기타 농기계 수출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국의 기타 농기계 대(對)우즈베키스탄 수출 동향

(단위 : 천 달러, %)

품목 (MTI)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7289	기타 농기계	9,420	141.2	59,189	528.3	17,611	-70.2

자료 : KOTIS

라. 정책·규제 환경

수출 장려 정책 도입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보험 및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발표(2019년 5월)하고 주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통해 세제혜택 및 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 (재무부) 기업 활동 발전지원펀드를 통해 수출기업의 대출금리 일부 보조
 - (수출진흥청) 농산물 수출 시 철도 운송요금의 최대 50% 지원
 - (은행협회) 수출기업 우대대출 등 지원 확대
 - (관세위) 수출 비중이 수익의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VAT 유예
- 이 밖에 농업, 섬유, 천연자원(주로 금속류)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신규로 도입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지속하고, 이를 원부자재 구입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노력

- 유통제품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라벨링 도입에 관한 대통령결의(2019년 8월)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 및 수입된 상품에 대해 라벨링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
 - * 즉시 시행 : 주류, 비주류 음료, 약품, 비타민, 식품첨가물,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용품, 비료, 자동차 연료 등 54개 품목
- 우즈베키재건개발펀드(UFRD)에 1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 펀드(Direct Investment Fund)를 구성하고, FDI 및 혁신기술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투자펀드운영공사를 설립(2019년 1월, 정부 지분 100%, 자본금 5백만 달러 규모)

- 우즈베키스탄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에게는 3년의 투자비자(연장 가능)를 제공하고, 3백만 달러 이상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10년의 영주권(거주 허가)을 제공(2019년 9월)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공기업 지분 매각 및 외국인 투자유망사업을 발표(2019년 5월)

대통령령 발표, 주요 외국인 투자유치 유망 분야

① 주요 공기업의 우즈벡 정부 지분 매각 : 금융기관, 발전소, 화학플랜트, 제조업 공장

- 금융기관 : Kafolat Bank(25.0%), Turon Bank(25.0%), Aloka Bank(25.0%) 등
- 발전소 : 안그렌 발전소(99.0%), 노보안그렌 발전소(99.59%) 등
- 화학플랜트 : 페르가나 질소공장(48.05%), 쿤그라드 소다공장(51.0%), 데카나바드 소다공장(51.0%) 등
- 건설 분야 : 키질쿰 시멘트(35.9%), Quartz 유리공장(74.98%) 등
- 식품 분야 : 코카콜라 우즈벡(57.0%), 사마르칸트 와인공장(71.2%), 나망간 와인공장(57.24%), 쇼흐루드 주류공장(51.0%), 타슈켄트 유지공장(51.0%), 페르가나 유지공장(51.0%), 카르쉬 유지공장(51.0%) 등
- 유가스 : 페르가나 석유가스(100%), 굴리스탄 석유가스(100%), 안디잔 석유가스(100%) 등

② 외국인 직접투자 유망사업 : 전력·유틸리티, 철강, 농식품 가공 등

△(전력·유가스) 20건, 44.47억 달러, △(철강·기계·전자) 13건, 5.37억 달러, △(농업·식품) 26건, 5.51억 달러, △(교통·주택) 5건, 5.34억 달러, △(관광·제약) 22건, 1.6억 달러 등

③ 민간협력사업(PPP) 형태의 프로젝트 진출 분야 : 발전소, 교통, 의료시설 등

- (발전소) 나보이 100MW 태양광발전소(1억 달러), 사마르칸트 200MW 태양광발전소(2억 달러), 타슈켄트주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터키 Cengiz Enerji Sanayii), 수르한다리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터키 Yildirim Enerji Holding)
- (교통) 타슈켄트-사마르칸트 유료도로 건설(터키 Cengiz Enerji Sanayii), 타슈켄트-안디잔 유료도로 건설, 타슈켄트 국제공항 현대화(4.7억 달러)
- (기타) 혈액투석센터(2,700만 달러) 등

2 시장 분석

- 중앙아시아 최대의 '젊은' 인구 보유국,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원유, 천연가스, 금)
-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 한국제품과 문화에 대한 프리미엄 보유
- 이중 내륙국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물류 여건(운송기간, 비용 등)

가. 시장 특성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이며, 금과 천연가스 등 원자재 풍부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약 3,300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
 - 전체 인구는 연간 1.6%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며 평균 연령이 26.5세로 낮은 편
 - 도시인구 비율은 50.6%에 불과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타슈켄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비 시장 형성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편
- 원유(6억 배럴)를 비롯해서 천연가스(1.1조 m³), 금(0.5만 톤), 우라늄(6.6만 톤) 등 주요 원자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출
 - * 각 자원은 추정 매장량 기준(2018년, 우즈베크 통계청)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 한국제품에 대한 브랜드 프리미엄 보유

- 1992년 수교 이후 10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으며, 약 20만 규모의 고려인 커뮤니티가 우즈베크의 국가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커 한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도 높은 편
 - 1990년대 중반 대우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자동차와 섬유산업 분야에서 현지 투자진출한 한국 기업이 좋은 평판과 높은 경쟁력을 보유
 - 전반적으로 Made in Korea가 표시된 제품이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콘텐츠(한국 드라마, K-Pop)도 큰 인기
- 농업과 자원개발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제조업, 보건·의료, 교육, IT 분야 등 다각도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

이중 내륙국가로서 높은 물류비는 국제교역 확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

- 중앙아시아의 핵심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내해가 없어 대부분의 물류는 육상 운송을 필요로 함에도, 인근 지역의 도로 인프라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함

- 국경을 2곳 이상 거쳐야 하는 ‘이중 내륙국가’로서 화물 운송은 주로 철도(시베리아 횡단, 중국 내륙 횡단)와 항공을 이용할 경우 긴 기간과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함
 - 철도 운송은 우리나라로부터 약 50일 내외, 인근 국가의 항구로부터 20일 이상이 소요되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운송비용(40ft 기준, 약 5~6,000달러)이 발생
 - 가스 터빈 등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일부 품목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운송 되기는 하나, 운송로 상태가 좋지 않고 소요기간이 길어 애로가 큼
- 이러한 제반 환경을 반영하듯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PI)에서 160개국 중 99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하위권 답보 상태

2019년 우즈베키스탄 물류성과지수 부문별 점수 및 순위

(최소 1점·최대 5점)

부문	총점	통관	인프라	국제 수송	물류 역량	물류 추적	적시성
점수	2.50	2.13	2.44	2.38	2.49	2.54	3.0

자료 : 세계은행

나. 교역

우즈베키스탄 교역 동향

- (개황)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교역액은 전년 대비 27.3% 증가한 338억 달러로 2014년 이후 3년간 감소세에서 반등 성공하였는데, 2017년 이후 교역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신정부 취임 이후에 추진되는 각종 경제개발계획 추진 및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영향에 기인함

우즈베키스탄의 연도별 교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 출	14,108.7	-6.5	12,870.6	-8.8	12,567.6	-2.4	13,893.6	10.6	14,253.9	13.5
수 입	13,959.2	1.1	12,415.5	-11.1	12,114.0	-2.4	13,013.4	7.4	19,555.2	39.6
교 역	28,067.9	-2.8	25,286.1	-9.9	24,681.6	-2.4	26,907.0	9.0	33,809.1	27.3
무역수지	149.5		55.1		453.6		880.2		-5,301.3	

자료 : 우즈벡 통계위원회

- (국가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전통적으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5개 국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의 57.5%를 차지하며 6위와 7위 그룹인 독일과 일본의 교역액은 연간 7~8억 달러 수준으로 5위인 한국(21.6억 달러)과 약 3배 정도로 차이가 큰 편. 이외 주요 교역국은 지리적 인근국인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등

우즈베키스탄의 2018년 국가별 교역량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국가명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 비중
합 계		33,809.1	14,253.9	19,555.2	100
1	중국	6,426.9	2,869.0	3,557.9	19.0
2	러시아	5,729.8	2,192.9	3,536.9	16.9
3	카자흐스탄	3,022.2	1,457.7	1,564.5	8.9
4	터키	2,166.4	931.9	1,234.5	6.4
5	한국	2,138.6	91.7	2,046.9	6.3
6	독일	771.7	46.9	724.8	2.3
7	일본	700.4	13.2	687.2	2.1
8	아프가니스탄	601.8	599.7	2.1	1.8
9	키르기스스탄	481.0	348.2	132.8	1.4
10	우크라이나	430.3	103.3	327.0	1.3
11	라트비아	429.5	40.9	388.6	1.3
12	벨로루시	420.0	43.2	376.8	1.2
13	미국	408.5	30.4	378.1	1.2
14	타지키스탄	389.1	236.1	152.9	1.2
15	이란	306.5	172.6	133.9	0.9
16	프랑스	306.4	189.9	116.5	0.9
17	이탈리아	303.2	25.8	277.3	0.9
18	투르크메니스탄	302.1	59.1	243.0	0.9
19	리투아니아	289.7	11.6	278.1	0.9
20	인도	284.6	23.3	261.3	0.8
21	영국	235.8	164.4	71.4	0.7
22	스위스	169.6	11.4	158.2	0.5
23	폴란드	159.0	37.9	121.1	0.5
24	네덜란드	147.3	11.6	135.7	0.4
25	아랍에미리트	141.4	60.8	80.6	0.4
26	오스트리아	108.5	5.5	103.0	0.3
27	파키스탄	98.4	32.4	66.0	0.3
28	벨기에	87.8	26.5	61.3	0.3
29	말레이시아	78.3	7.7	70.6	0.2
30	싱가포르	77.2	57.6	19.6	0.2

자료 : 우즈베크 통계위원회

- (수출)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42.5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출품목은 서비스, 에너지·석유제품, 철·비철금속, 화학제품, 식품류 등으로 주로 가스와 광물자원 등의 원자재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화학제품은 원료를 수입 후 현지에서 재가공하여 수출
 -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원자재를 그대로 수출하는 것은 제한하고 가공 수출할 것을 장려하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수출구조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

우즈베키스탄의 품목별 수출 동향(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

품 목	수출액	비중
서비스	3,029.9	21.3
에너지·석유제품	2,666.2	18.7
철·비철금속	1,167.1	8.2
화학제품	904.6	6.3
식품류	1,097.7	7.7
면화	222.1	1.6
자동차·기계설비	214.1	1.56
기타	4,952.2	34.7
합 계	14,253.9	100

자료 : 우즈벡 통계위원회

- (수입)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수입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195.5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기계설비, 화학제품, 철·비철금속, 식품류 등으로 주요 자동차 관련 부품과 설비 이외에 원부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
 - 특히, 외환자유화 조치(2017년 9월) 이후 외화결제에 용이해짐에 따라 수입 수요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육성에 따른 설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우즈베키스탄의 품목별 수입 동향(2018년)

(단위 : 백만 달러, %)

품 목	수입액	비중
자동차·기계설비	8,321.7	42.5
화학제품	2,554.8	13.1
서비스	2,242.9	11.5
철·비철금속	1,773.3	9.1
식품류	1,581.6	8.1
에너지·석유제품	879.5	4.5
기타	2,201.4	11.2
합 계	19,555.2	100

자료 : 우즈벡 통계위원회



우리나라 제품 시장 위치 및 경쟁 동향

- **(개괄)**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터키, 독일, 그리고 한국 5개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고,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높은 편
 - 2015년 중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우즈베키스탄 수출 1위 국가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계속 유지, 이는 기계설비와 건축부터 소비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지리와 문화관상의 이점이 있는 반면, 독일과 터키는 산업 구조상(기계류, 건설 등)의 이점이 주로 작용
 - 우리나라는 과거 대우시기에 투자진출한 기업들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분야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과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지도도 높은 편
- **(철강)**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3개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로 현지 진출기업의 생산과 건설 프로젝트용으로 일부 수입
- **(전자기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10%대의 수입 시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바이를 통해 수입되는 물량도 있어 실제 비중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
- **(의약품)**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내수산업으로 우리나라 제약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

기타 우즈베키스탄 주요 수입품과 주요 경쟁국(2018년)

순위	철강(72류)		순위	전자기기 TV·VTR(85류)		순위	의약품(30류)	
	국명	비중(%)		국명	비중(%)		국명	비중(%)
1	러시아	47.0	1	중국	46.3	1	러시아	14.0
2	카자흐스탄	29.8	2	러시아	10.2	2	인도	10.7
3	중국	15.7	3	한국	9.9	3	조지아	9.0
4	한국	3.9	4	터키	6.0	4	독일	8.4
5	키르기스스탄	1.6	5	아랍에미리트	5.8	5	스위스	7.3
6	터키	0.5	6	일본	4.2	26	한국	0.4

자료 : ITC Trademap



수입 규제 및 장벽

-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제조업 설비에는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반대로 현지에서 생산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자동차, 섬유제품,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와 소비세를 부과
- WTO 미가입국으로 자국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연관 산업분야에서 외국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함

* 단,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인 합리화를 위한 조직적 조치』 대통령령(2018년 2월)을 통해 WTO 가입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무역 관련 단체 및 통상 전문가들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수행 중

다. 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 (개황) 2018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전년 대비 36.6% 증가한 약 39억 달러를 기록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외국인 투자액	35	35	17	24	39

자료 : 우즈벡 통계위원회

- 지역별로는 카쉬카다라 지역이 2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부하라 지역(13.4%), 타슈켄트시(12.0%), 나보이 지역(11.7%) 순을 차지
- 투자분야별로는 전기·가스 유틸리티업이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후 제조업(26.6%), 광산업(19.6%), 교통물류(5.6%), 상하수도(2.5%)의 비중
- 투자분야별로 외국인 투자의 자금 대출 추이를 보면 석유가스, 정보통신,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분야의 대출은 감소한 반면, 섬유봉제, 교통물류, 식료품 생산 및 가공 등의 분야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

기업경영 환경

- World Bank Group이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Doing Business 2019'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전년 대비 2계단 하락한 76위를 기록
- 항목별로 보면 전체 10개 중 법인설립(12위), 전력공급(35위), 계약체결(41위)에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받았으며, 기업대출,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항목에서는 60위권을 기록하였으나, 건설 인허가 취득(134위)과 국제교역환경(165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라. 프로젝트

건설 산업 현황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의 2018년 4분기 Uzbekistan Infrastructure report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2018년 인프라-건설업 시장규모는 15.5억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약 4.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정부 출범을 전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나, 2021년부터 5%대의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바, 미리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우즈베키스탄 건설 시장 규모

(단위 : 10억 우즈벡 슝(UZS))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규모 (달러 환산, 억 \$)	14,566.34 (15.5)	16,841.91 (17.9)	19,205.71 (20.4)	21,741.31 (23.1)	24,939.96 (26.5)	28,505.68 (30.3)
전년 대비 성장률(%)	3.25	3.75	3.85	3.90	5.41	5.46
GDP 대비 비중(%)	6.1	5.8	5.6	5.4	5.3	5.3

자료 : BMI Uzbekistan Infrastructure report Q4 2018(* 2019~2022년은 전망치, 확인 가능 최신 자료)

환율 : USD 1=UZS 9,400



향후 전망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는 MDB 재원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도시생활기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우즈벡 정부는 재원 부족 및 환율 불안 문제 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요 프로젝트를 민관합동사업(PPP)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과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 또는 제정 중에 있으므로, PPP까지 염두에 둔 프로젝트 시장 진출 전략 수립할 필요

가. 교역

 2018년 기준, 한국과 우즈벡 양국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78.5% 증가한 21.4억 달러를 기록

한-우즈베키스탄 연도별 교역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 출	2,033(3.3)	1,284(-36.8)	928(-27.7)	1,180(27.2)	2,117(79.4)
수 입	27(-48.5)	16(-41.0)	21(28.7)	18(-12.5)	22(21.0)
교 역	2,060(1.9)	1,300(-36.9)	949(-27.0)	1,198(26.8)	2,139(78.5)
무역수지	2,006(4.7)	1,268(-36.8)	907(-28.5)	1,162(28.2)	2,095(80.2)

자료 : KOTIS

 2018년 한국의 대(對)우즈벡 수출은 전년 대비 79.4% 증가한 21.1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출품은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과 승용차로, 대부분이 UzAuto(전 GM 우즈베키스탄)의 완성차 부품 1차 벤더를 통한 것
- 특히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내수생산 목표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UzAuto가 생산하는 완성차 모델의 부품 수출도 꾸준히 증가
- 그 밖에 건설업 활성화로 인한 건설 중장비 및 철 구조물, 고정자산 투자 증가로 인한 산업기계, 선진 농업시설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농기계 및 농업 관련 설비, 부분품의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

품목별 대(對)우즈베키스탄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연번	품목 (MTI)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수출			927,671	-27.7	1,180,445	27.2	2,117,451	79.4
1	7420	자동차부품	338,530	-36.4	553,024	63.4	819,625	48.2
2	7411	승용차	59,525	-36.0	132,649	122.8	301,546	127.3
3	2140	합성수지	28,283	-36.6	51,661	82.7	61,070	18.2
4	7131	공기조절기	23,336	68.8	4,244	-81.8	60,545	1,326.6
5	9990	기타 잡제품	59	-36.9	13,633	22,940.8	59,305	335.0
6	7251	건설 중장비	9,472	-59.7	14,521	53.3	53,305	267.1
7	7111	원동기	21,305	-73.2	20,643	-3.1	42,163	104.3
8	7112	펌프	30,008	-26.5	18,387	-38.7	41,891	127.8
9	7133	가열난방기	18,604	317.6	1,728	-90.7	32,584	1,785.6
10	7290	기타 산업기계	5,629	-46.7	1,683	-70.1	31,858	1,793.0

자료 : KOTIS

2018년 한국의 대(對)우즈벡 수입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2,200만 달러 기록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은 펄프, 과실류, 식물성 한약재, 면사 등 1차 생산품 및 그 기초 가공품으로 한정
- 주재국의 수출 장려 정책에 따라 현지에 투자진출한 한국 자동차부품 생산법인으로부터 일부 수입되고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음

주요 품목별 대(對)우즈베키스탄 수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연번	품목 (MTI)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수입			20,777	28.7	18,170	-12.5	21,920	21.0
1	2511	펄프	6,739	7.2	6,815	1.1	9,440	38.5
2	0116	과실류	557	251.5	547	-1.8	2,910	431.8
3	0156	식물성 한약재	2,529	-29.3	2,004	-20.8	2,439	21.7
4	4331	순면직물	2,866	578.2	2,538	-11.5	2,201	-13.3
5	6282	물리브덴제품	-	-	-	-	1,050	0.0
6	0191	천연섬유원료	25	0.0	466	1,795.8	878	88.3
7	4213	면사	5,185	86.5	2,938	-43.3	770	-73.8
8	7420	자동차부품	209	-52.2	601	188.0	461	-23.4
9	0199	기타 농산물	24	-57.8	94	295.1	324	245.8
10	2310	질소비료	313	-42.6	448	43.0	294	-34.3

자료 : KOTIS

수출 성공사례

- 의료분야 전문 기계설비 기업 A사
 - 수출금액 : 약 190만 달러(2018년 기준)
 - 수출품목 : 주사기 생산 기계설비
 - 성공요인 : 꾸준한 잠재 바이어 관리 및 정부의 산업정책 모멘텀 활용
 - 거래 가능성이 있던 현지 바이어의 설비도입 프로젝트가 인허가와 은행대출 문제로 몇 년간 정체되자 동 기간 동안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해 연락을 유지하는 한편, 잠재 거래처 60~70개사를 추가로 발굴하여 신규개발 제품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
 - 의료용 소모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 발표되면서 현지 바이어의 생산 인허가와 은행대출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고, 이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초도 설비 수출 성공(2017년, 150만 달러 규모)
 - 기 설비도입 현지 바이어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타 의료용 소모품 생산설비 도입도 검토 중이며, 이에 A사의 설비 판매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

나. 투자

 실 투자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우즈벡 투자는 수교 이후부터 2018년까지 누적으로 총 316건, 7억 702만 달러

연도별 대(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연도	현지법인	지점	지사	신고금액	실 투자금액
1992 ~ 2005	51	0	3	611,071	309,260
2006	15	1	1	41,278	22,399
2007	32	4	3	345,765	70,264
2008	28	0	2	119,733	65,844
2009	14	1	2	41,085	32,757
2010	19	0	1	42,379	40,726
2011	13	0	2	50,743	54,955
2012	13	1	3	37,973	18,964
2013	14	1	3	36,706	13,172
2014	7	1	4	16,785	11,603
2015	7	0	0	18,297	8,699
2016	10	3	8	32,243	26,827
2017	10	0	1	11,276	7,234
2018	29	1	6	64,814	17,683
광업	1	0	0	175	107
제조업	7	0	2	21,028	6,856
건설업	5	1	0	21,664	1,227
도매 및 소매업	4	0	0	3,640	3,264
금융 및 보험업	1	0	0	6739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0	1	484	54
정보통신업	3	0	1	237	65
부동산업	2	0	1	1,792	1,785
운수 및 창고업	2	0	1	683	671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1	0	0	850	1,362
농업, 임업, 어업	2	0	0	477	4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1	0	0	7,000	1,786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업	1	0	0	45	30
누계	264	13	39	1,470,196	707,027
		31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별 누적으로 제조업(132건, 4억 4,433만 달러), 부동산업(19건, 5,645만 달러), 광업(8건, 4,693만 달러), 정보통신업(10건, 4,107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11건, 4,197만 달러) 등

업종별 대(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업 종	1992~2018년				
	현지법인	지점	지사	신고금액	실 투자금액
제조업	121	3	8	798,089	444,334
부동산업	18	0	1	338,872	56,457
광업	8	0	0	60,435	46,933
정보통신업	8	0	2	42,540	41,075
금융 및 보험업	8	0	3	72,229	41,972
운수 및 창고업	12	0	6	31,957	24,270
숙박 및 음식점업	8	0	0	50,479	17,2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	0	3	11,146	10,238
도매 및 소매업	31	0	2	17,045	11,764
건설업	23	8	4	28,991	5,41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2	8	5,775	1,915
농업, 임업 및 어업	4	0	0	2,648	1,2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0	1	874	75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0	0	1,862	1,5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	0	7,080	1,866
교육 서비스업	0	0	1	40	4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	0	0	52	0
N/A	0	0	0	82	0
합계	264	13	39	1,470,196	707,027
	31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대표적인 진출기업으로는 자동차부품과 섬유분야의 제조기업을 비롯해 KOTRA, 한국가스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지상사협의회에는 50여 개사가 가입해 있으며 전체 진출 기업은 약 100개사 정도인 것으로 파악

업종별 주요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

업 종		투자진출 기업명
제조업	자동차부품	우즈동흥, 우즈세명, 우즈동주, 우즈동양, 우즈거제, 우즈동원, 우즈이래CS, 우즈이래케이بل, 우즈이래알터네이터, 우즈한우, 우즈성우, 광진오토, 세프라, 우즈인지, 우즈오토오스템 등
	방직·봉제	포스코텍스타일, 신동, 영원무역
	기타	GKD(한국조폐공사-포스코인터내셔널 합작법인), 유한양행 등
자원·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롯데케미칼, 신동에너콤 등
물류		범한판토스, 롯데로지스틱스, CJ ICM, UPR, UNICO, 우진글로벌 등
통신		EVO, LG CNS Uzbekistan 등
금융		KDB Uzbekistan(산업은행)

자료 : 타슈켄트무역관 조사 자료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 포스코텍스타일

- 1996년 대우면방법인(DTC)이 최초 설립된 후 2008년 부하라 면방법인, 2009년 통합 페르가나 면방법인 설립, 이후 포스코텍스타일(전 대우텍스타일)로 법인 통합

* 현지에서 생산한 단사, 합사 등을 유럽, 중국, CIS 등지로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페르가나 지역의 경제에도 고용, CSR 활동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현지 신뢰도가 높음

- 세계적 면화생산국인 우즈베크 원면을 현지 조달하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해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제품 생산 및 품질의 표준화를 실현하였으며 아울러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유럽 등을 대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수익선 다변화

○ GKD(Global Komsco Daewoo)

- 한국조폐공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2010년 투자, 설립한 법인으로 현지 원면을 가지고 지폐용 면펄프 등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
- 세계적 면화생산국인 우즈베크 원면을 현지 조달하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이며 한국의 지폐용 면펄프의 안정적 수급을 고려한 것 이외에 CIS,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수익 구조를 개발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우리나라의 대(對)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수주 통계

- 2018년 누계 기준 총 127건, 107억 달러의 누적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2건, 5.3억 달러를 기록
- 2013년 45억 달러로 최고 수주 실적을 달성하고 2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 반등하는 듯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주요 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2018년에는 급감

우리나라의 대(對)우즈베키스탄 해외 건설 수주 통계

(단위 : 천 달러, 건)

연도	수주액 (건수)	공종별 수주액(건수)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통신	용역
2018	53,128(12)	-	3,006(2)	5,308(2)	-	44,814(8)
2017	440,321(8)	-11,949(0)	47,367(3)	395,561(2)	-	9,342(3)
2016	398,393(7)	-18,730(0)	8,242(1)	401,699(0)	-	7,182(6)
2015	126,077(13)	16,902(2)	1,908(1)	-	100,590(2)	6,677(8)
2014	2,040,603(7)	3(0)	10,958(4)	2,029,504(2)	-	138(1)
2013	4,533,986(8)	190,226(3)	-	4,343,472(3)	-	288(2)
2012	9,062(5)	-	10(0)	2,507(1)	1,000(0)	5,545(4)
1993 ~ 2011	3,092,336(65)	285,485(8)	379,485(6)	2,137,152(5)	10,400(1)	279,814(45)
누적 총계	10,709,658(127)	476,978(15)	451,687(17)	9,315,203(15)	111,990(3)	353,800(77)

자료 : 해외 건설 종합 정보 서비스



한국기업 수주 사례

- 수르길 가스전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공기 준수 및 높은 품질)함으로써, 한국기업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신뢰 형성

우리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 내역

기업명	세부 공사 내용
포스코건설	CAREC A380 고속도로(메샤클-투르쿨 91km, 키실락-가질 85km)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유틸리티·에틸렌·GSP&Polymer)
현대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천연가스 액화정제 플랜트(GTL)(카쉬카다리아 주 Shurtan 지역)
현대엔지니어링	칸덤 가스처리 플랜트 건설(F/S, 기본·상세설계 수행)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타히아타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자료 : 무역관 조사 자료

Ⅲ. 진출전략

- (이슈·산업)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① 제조업 육성, ② 인프라 개발 ③ 외국인 투자유치 수혜분야의 산업과 품목 중심의 마케팅 전개
- (경협활용) 기술이전 및 ICT 분야 유무상 원조를 통해, 민간분야의 진출기반 마련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우즈베키스탄 시장 SWOT 분석>

S

강 점 (Strength)

- 연간 5%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
- 3,200여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
- 중앙아 중심에 위치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도로, 철도, 가스관, 전력 등 교류의 가교 역할 수행
- 가스, 우라늄, 면화 등 자원 및 원자재 풍부

W

약 점 (Weakness)

- 이중 내륙국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물류여건
- 전반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은 금융 시스템
- 불투명하고 경직된 행정 관행
- 잦은 제도·정책 변경으로 인한 진출 위험성
-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

기 회 (Opportunity)

- 미르지옌프 대통령 신정부의 높은 개혁의지
- 고려인 20여만 명, 한국제품과 문화에 우호적
- 우리나라와의 유·무상 원조 사업 활발 (EDCF, KOICA)
- 러시아 및 중앙아 인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 ADB, WB 등의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다수

위 험 (Threat)

- 자국 산업 육성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노력
- 외환자유화 및 환율단일화 시행(2017.9.5) 이후 환율 상승 등 경제 펀더멘털의 변동성 증가
- 본격적인 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 소비자들의 더딘 구매력 상승폭

O

T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현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주력품목 발굴 • 민관협력사업(PPP) 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확대	정책·법령 동향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ST 전략 (강점 활용)	• 한국 브랜드와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 적극 활용 • 현지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브랜드 마케팅 확대	브랜드 중심의 소비자 마케팅 전개
WO 전략 (기회 포착)	• 공여사업과 마케팅 연계 활용(보건, 의료, 기술협력 등) • 내수시장 외 주변 중앙아·CIS 시장 동시 타깃팅	전략산업 협력 강화
WT 전략 (위험 대응)	• 제조업 투자진출 고려 • 경험전수(KSP) 및 우즈벡의 수출지원 정책 활용	기술·지식교류 기반 강화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신규 제조업 분야 육성에 따른 기계설비 분야 마케팅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신(新)설비 또는 추가 공정 도입을 통해 자국 핵심 산업 분야 개혁하고 부가가치 증대 추진
- 국내 조달이 어려운 원재료, 기술,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금 혜택 제공
-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정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즈벡 정부는 자국의 핵심 산업으로 ① 에너지 분야(석유·가스, 화학) ② 농업 관련 분야(농업·식품, 섬유) ③ 제조업 기반 분야(건축자재, 기계) 등을 꼽고 이를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 특히 전통 핵심 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공정상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방향으로 개혁
 - 농업에서는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최신 농기계 도입, 온실 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며, 섬유 산업에서는 단순 원면 생산에서 탈피하여 추가 공정(염색, 디자인, 봉제) 관련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

- 무조건적인 폐쇄에서 탈피하여 국내에서는 생산하고자 하나 원재료, 기술, 설비 등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

* PP-3818 『우즈베키스탄 내 대외 경제 활동 조화 증진 및 관세 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고부가가치 제조 설비) 저장 및 가공을 통해 기존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거나, 수출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분야의 제조 설비
 - (농업) 온실, 농업 관련 제어기기(스마트팜 등), 저장고 및 시설, 식품가공 설비
 - (기타) 봉제 또는 염색 설비, 의약품 제조 설비 등
- (유희기술·장비 이전) 한국에서는 이미 사양화되었으나 현지에서는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여 아직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제조 설비 이전
 - * 이전분야 : 농기계, 건축자재, 섬유기계,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기타 제조용 설비 등
- (첨단기술 수출 또는 운영 지원에 따른 기술료 계약) 직접적인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기계·설비 판매 및 운영·교육·유지 보수, 라이선스 이용 등에 따른 기술료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나. 민관협력(PPP) 형태의 프로젝트 참여 고려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우즈베크 정부, 법 제정 및 PPP 개발청 설립을 통해 민관협력사업(PPP) 확대 계획 발표
- 주요 발주 분야는 교통, 에너지, 식수공급 및 교육, 보건 등에 대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 세부 시행령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우리기업들의 강점 분야에 대한 진출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즈베키스탄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방안 중 하나로 PPP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PPP 사업 추진계획 발표(2017년 10월) 이후, PPP청을 설립(2018년 10월)하고 PPP 법안을 발표(2019년 5월)
- * 우즈베키스탄 PPP 개발청 홈페이지 : <https://www.pppda.uz>
-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표 하면서 총 사업비 16억 달러 규모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발표

우선순위 PPP 프로젝트 유형별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 분	합계	발전소	도로	공항	기타*
건수	15	5	2	2	6
금액	16.6**	8	미정	8.3	0.3

* (기타) 혈액투석센터 건설, 운영 시스템 위탁(상하수도, 전력, 천연가스, 난방 등)

**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금액 미발표. 발표된 금액 합산 시 16.6억 달러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PPP법 발표를 통해 우즈베크 정부가 밝힌 우선 분야는 교통, 에너지, 식수공급 분야이며, 매년 GDP의 약 7.4%인 30.6억 달러 규모가 인프라의 PPP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ADB, 2019년 5월)
- PPP 개발청에서 발표한 관련 법 시행령의 내용과 향후 추가로 발표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감리 등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역량 및 과거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주가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략

다. 제조업 투자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완제품 수출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현지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투자자 친화적' 여건 조성
- 세금면제 및 정부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제조업 분야 투자진출이 유망하며 인근 국가 시장도 고려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완제품 수출 시 관세 등 진입장벽이 높거나 해당 산업이 노동집약적일 경우 현지 생산으로 인해 관세 및 인건비 절감에 유리
 - 농산물 수출 시 도매 라이선스 없이 과채류 수출을 허가하고, 수익에 대한 통합세 적용(2019년 2월)
 - 전기계량기 및 그 부품을 현지 생산 시 관련 원부자재의 관세 및 부가세 면제(2019년 2월)
- 외국인 투자유치를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외환자유화, 면세 혜택 부과, 인허가 절차 완화, 회계제도 개편 등 투자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 중

주요 진출분야

-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세금면제 분야)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 기간 동안 소득세, 재산세, 인프라세, 중소 자영업자를 위한 통합세, 도로 기금 등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FDI) 세금 면제대상 분야(일부)

연번	분 야
1	전자, 컴퓨터 부품 및 컴퓨터 기술
2	경공업(면, 모, 편직물, 혼합직물, 속옷, 니트, 양말, 신발 등)
3	실크(원단, 완제품 생산)
4	건축자재(2005.3.24. 제정된 대통령령 UP-3586 부록 1a에 해당하는 품목)
5	식품(담배, 주류를 제외한 현지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
6	생선 가공 및 저장
7	화학
8	석유화학
9	제약(동물약품 포함)
10	포장 자재
11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

12	전기합금철 및 금속 제조
13	기계 엔지니어링(트랙터 등 농기계 생산 등)
14	기계 공구
15	유리, 도자기
16	관광(호텔·여행업, 2017.6.1. 부터 혜택 적용)

자료 : 우즈베키스탄 법령 조회 시스템(Lex.uz)

외국인 직접투자(FDI) 세금 면제조건

조 건
- 기업이 타슈켄트시 및 타슈켄드 주 외에 소재
- 우즈베키스탄 보증 없이 해외에서 직접 투자
- 해외 투자기업의 법정 자본금 비율이 33% 이상(주식회사의 경우는 15% 이상)
- 투자금을 경화 또는 최신 기술 설비 형태로 투자
- 세금면제로 인한 이익의 50% 이상을 회사에 재투자

자료 : 우즈베키스탄 법령 조회 시스템(Lex.uz)

- **(정부 지분 매각 분야)** 우즈베크 정부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정부가 보유한 주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며, 여기에는 화학, 식품 등 제조업 분야도 포함
 - * 화학(매각 지분율) : 페르가나 질소공장(48.05%), 쿤그라드 소다공장(51.0%), 데카나바드 소다공장(51.0%) 등
 - * 식품(매각 지분율) : 코카콜라 우즈베크(57.0%), 사마르칸트 와인공장(71.2%), 나망간 와인공장(57.24%), 쇼흐루드 주류공장(51.0%), 타슈켄트 유지공장(51.0%), 페르가나 유지공장(51.0%), 카르쉬 유지공장(51.0%) 등
-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수시장 외에도 인근 시장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기타 중앙아 국가 등, CIS 및 유럽 시장 수출을 고려한 투자진출 전략이 필요
 - 우즈베크 내수시장은 매년 전반적으로 약 5%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구매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환개방 이후에는 변동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이 필수적
 - 중앙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등을 활용하여 인근 CIS 지역과 기타 유럽 지역에 수출할 경우 이를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전망

3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정상외교를 활용한 산업 간 협력기반 구축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2019년)에 신산업 분야로 포함한 10여 개 MOU 체결
- 향후 정기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 및 실무 세부사항을 논의하면서 협력 추진에 탄력
- 경제발전 노하우 공유, 헬스케어, 정보통신, 농업, 보건 분야 등으로 협력 산업 다각화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문재인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2019년 4월 18~21일) 계기에 양국 정부, 기관, 기업은 총 10건의 MOU 체결을 통해 기존의 에너지·자원 협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통신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
- 현재 양국은 무역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협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노력 중
 - * 1차 워킹그룹회의(2019.6.20, 서울) 및 2차 워킹그룹회의(2019.9.25, 타슈켄트) 개최



협력방안

- **(무역, 투자, 기술 분야 산업협력)** 우즈벡 정부 대상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제고, 경제자유구역 운영 노하우 공유, 한국형 산업기술 전수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경제 진흥의 기초역량이 되는 경험 전수
- **(신산업 분야)** 헬스케어(의료 데이터 구축, 인력양성, 스마트 기술 공동시연), 정보통신(자율주행, 무선통신, VR·AR)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기 인력 교류
- **(농업 분야)** 농업협력 거점 운영을 통해 기술 및 인적교류를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키지 (기술+기자재)’ 형태로 우리 농업 기업(농기계, 종자, 비료 등)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 마련
- **(보건 분야)** 정책자문 및 컨설팅 또는 협력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보건의료 사절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와 연계하여 마케팅(의료기기, 의료관광) 또는 투자진출(제약기업) 추진

※ 참고 : 2019년 4월 정상외교 체결 주요 MOU 현황

제 목	내 용
① (무역) 무역투자 협력 MOU	• (체결주체) (韓) KOTRA-(우) 투자대외무역부 • (내용) 우즈베크에 KOTRA의 무역투자 진흥 역량 전수를 통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한국기업의 이미지 제고
② (무역) 안그랜 경제특구 위탁운영 MOA	• (체결주체) (韓) 인천경제청-(우) 투자대외무역부 • (내용)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모델의 우즈베크 수출을 통해 양국 경제자유구역 협력 활성화 도모
③ (산업) 한-우즈베크 산업기술 확산 사업 MOU	• (체결주체) (韓) 산업기술대-(우) 타슈켄트 섬유경공업대 • (내용) 조성 중인 섬유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한국형 산업기술 전수를 위한 센터 구축 및 상생협력 모델 창출
④ (산업) 한-우즈베키스탄 스마트 헬스케어 협력 MOU	• (체결주체) (韓) 인하대, 한진정보통신, 해셀-(우) IUT(Inha University In Tashkent), 타슈켄트메디칼아카데미(TMA) • (내용) 한-우즈베크 의료정보 교류 인프라 구축, 의료 인력양성 등 스마트 헬스케어 협력 추진
⑤ (산업) 한-우즈베크 정보통신기술 협력사업 MOU	• (체결주체) (韓) 전자부품연구원-(우) 정보기술대학 • (내용) 자율주행, 무선통신, VR·AR, 지능형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⑥ (산업) 농기계 분야 협력 MOU	• (체결주체) (韓) 생기원, 전북TP-(우) 농기계공사 • (내용) 농기계 분야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 기업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추진
⑦ (산업) 농기계 분야 협력 MOU	• (체결주체) (韓) 동양물산-(우) 한-우 농기계 R&D 센터 • (내용) 양국 농기계 기업 간 협력으로 우리기업의 중앙아 시장 진출 기회 창출과 우즈베크 농기계 시장 진출 모색 추진
⑧ (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협력 MOU	• (체결주체) (韓) 에너지공단-(우) 유아교육부 • (내용) 우즈베크 유치원 건물(1~2개소)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으로 에너지 효율 분야 협력 강화 추진
⑨ (에너지) 부하라 정유 공장 현대화 협력 MOU	• (체결주체) (韓) SK건설-(우) 국영석유가스공사 • (내용) 현재 Euro-2 품질의 석유제품을 Euro-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Upgrade 프로젝트 사업(6억 달러) 협력 MOU
⑩ (에너지) 전력 분야 사업협력 합의서(CA)	• (체결주체) (韓) 한전, 현대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우) 에너지부 • (내용) 양국 간 전력 분야 사업 공동 개발, 우즈베크 전력망 진단 및 계통 분석 공동시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6.19)

나. 산업 ODA를 통한 수출 및 투자거점 마련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기존 정부 간 협력사업은 수혜국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한된 방향으로 추진
- 우리나라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2019년 4월) 계기, 협력 분야 및 형태 다양화, 신산업 분야 대폭 추가
- 유희 기술·장비 이전, 기술료 계약, 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통한 수익모델 타진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 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양국 산업 및 기업 협력 증진에도 기여
- 기존에는 수혜국의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제한적인 방향으로 추진. 우즈베크의 경우 에너지, 농업, 섬유분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립적이면서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도입하고 기술도입, 합작투자, R&D 협력 등 다각도 접근이 요구



협력방안

- (섬유 및 농업 R&D) 2019년 중 개소한 섬유 테크노파크 및 농기계 R&D 센터 등을 활용, 현지 관련 분야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계와 부자재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현지 거점으로 활용
 - * 농기계 관련 장비, 교육훈련 등에 산업자원 ODA 66억 원 지원(2016~2019년)
- (IT 분야) 우즈베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발전·활성화, 공공기관의 통합 전산망 구축 사업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술·노하우를 제공하고, 향후 기자재 및 솔루션 수출과 연결
 - *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국립전자도서관 DB 구축,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등
- (서비스 유지·보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한 유무상 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향후 유지보수 사업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

다. 에너지·자원 프로젝트 협력 지속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우즈베크 정상순방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의 MOU 체결을 통한 진출 가능성 확보
- 프로젝트 수주 지원센터 등 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프로젝트 발굴
- 석유·가스 화학(4년간 304억 달러), 발전·에너지(4년간 120억 달러), 수력발전(26.5억 달러), 도시개발 등 투자 계획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우즈베크 정상순방 계기, 정부 간 MOU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향상 협력 MOU를 통해 에너지 효율 등 신규 분야에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마련함
- 우즈베크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진출에 특화된 해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유망 프로젝트 및 신복합 투자개발사업 발굴에 대한 협력을 강화
 - *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KOTRA), 프로젝트 정보은행(플산협), 해외 인프라 협력 센터(KIND) 운영

협력방안

- (석유·가스 화학) 우즈베크 정부는 2017~2021년 동안 석유가스 분야 개발에 총 304억 달러(74건)를 투자, 유전·가스전 개발, 가스 화학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
 - * 가스전 개발 및 가스정제 공장 건설(50억 달러), MTO(Methanol-to-Olefin) 사업, Shurtannettregaz 가스정제 공장 설비 현대화 사업, Mubarek 가스정제 공장 LPG 시설(4차) 등
- (발전·에너지) 국영전력청(Uzbekenergo)은 2018~2021년 동안 52건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7~2025 수력발전 개발 프로그램’ 수립(2017년 6월), 총 사업비 26.5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수력발전소 건설(18개) 및 현대화(14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 (도시개발·부동산) 정부는 ADB(5억 달러, 2017년), KFAED(30백만 달러, 2018년) 등 MDB 차관 및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2017~2020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간 분야의 건설 산업은 연간 약 30%씩 성장 전망(2019~2020년, 우즈베크 통계청)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 결제 의무 불이행	일방적인 구매계약 취소
▪ (현황) 대금 지급 관련 합의 사항 불이행 - 별도 협의 없이 기한 초과, 연기 요청,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상황 발생 ▪ (대응전략) 자금계획에 대한 사전 파악 ☞ 바이어의 대금 마련 계획을 계약 전 확인, 지불 지연 등에 대비한 플랜 B 마련	▪ (현황) 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및 연락 두절 - 계약 이후 여러 가지 핑계로 합의 사항 이행을 늦추거나 이메일·유선 연락 지연 ▪ (대응전략) 침착함과 꾸준함으로 대응 ☞ 거래중지 사유(환율, 저가 제품 오더)를 파악하고, 취소보다는 조정으로 대응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뢰도 형성 노력
경제제재 리스크	수입자 재무제표 불투명
▪ (현황) 사업주 및 발주처가 제재 당사자로 지정 - 거래기업에 대해 송금제한, 벌금 부과 등 ▪ (대응전략) 사업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 금융 지원 관련 은행 및 유관 공공기관과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성 점검	▪ (현황) 거래 파트너가 이중 재무제표 작성 - 세무조사와 내부관리용 재무제표를 따로 두어 신용도 파악 등이 어려움 ▪ (대응전략) 보수적인 접근 전략 필요 ☞ 파트너사의 매출과 이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금융 서비스 품질 불만	신뢰할 만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
▪ (현황) 금융기관의 낮은 서비스 품질 - 복잡한 서류 요구, 강압적이고 느린 일처리 방식, 높은 수수료 등 ▪ (대응전략) 금융기관 안정성 최우선 고려 ☞ 정부규제가 복잡한 현지 여건 감안, 거래은행은 자산규모가 크고 안정성 있는 은행을 이용	▪ (현황) 인터넷 및 홈페이지상 정보 부족 - 인허가·신고 업무 정부 담당자, 법령 규정, 통계, 출장 유의사항 등 비즈니스 정보 부족 ▪ (대응전략)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소스 활용 ☞ (국내 기관) KOTRA 해외시장정보·국가정보 또는 무역관 등 현지 진출 공공기관에 문의 ☞ (현지 기관)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Korean Desk, 투자 포털(invest.gov.uz) 등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43680	수입관세율(%)	0
농기계 (농업, 원예, 임업, 양봉용 기계 등)	수입액('18/US\$백만)	19	대한수입액('18/US\$백만)	18
	선정사유	원면 수출 등에서 벗어나 과채류, 화훼류 재배로 농업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수출 확대 추진, 한-우 농기계 R&D 센터 건립 추진으로 양국 협력 확대		
	시장동향	4년 전 대비 수입량 10배 이상 증가		
	경쟁동향	터키, 이란, 러시아 등		
	진출방안	농업전시회 참가 및 설비 신규·교체 수요 공략		
품목명 2	HS Code	842952	수입관세율(%)	0
건설장비(굴삭기 등)	수입액('18/US\$백만)	171	대한수입액('18/US\$백만)	46
	선정사유	건설 및 고정자산 투자 활성화로 수요 지속 발생		
	시장동향	2015년을 최저점으로 수입 증가세		
	경쟁동향	러시아, 카자흐스탄		
	진출방안	수요 보유 바이어 발굴, 공공 입찰 참여 등		
품목명 3	HS Code	820730	수입관세율(%)	10
방적기	수입액('18/US\$백만)	3	대한수입액('18/US\$백만)	2
	선정사유	현지 생산·가공을 위한 섬유 원재료 수요 증가		
	시장동향	단순 목화 및 원면 생산에서 방적과 봉제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섬유업 투자 확대		
	경쟁동향	독일, 중국		
	진출방안	산업 및 기계전시회 참가를 통해 노후화 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 도입 수요처 발굴		
품목명 4	HS Code	847710	수입관세율(%)	0
사출성형기	수입액('18/US\$백만)	28	대한수입액('17/US\$백만)	2
	선정사유	플라스틱 소비재 현지 생산 증가		
	시장동향	소비재 수입 억제 정책으로 높은 관세 장벽 실시 중이며 아울러 자국 생산 장려 중		
	경쟁동향	중국, 독일		
	진출방안	사출 관련 제조업 신규 업체 공략		
품목명 5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18/US\$백만)	26	대한수입액('17/US\$백만)	2
	선정사유	소득수준 향상 및 국민 보건에 대한 관심 증대		
	시장동향	신규 설비 보유 민간 병원 개원 증가 및 최신 설비 수요 지속 증가		
	경쟁동향	독일, 중국		
	진출방안	유력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입찰 참가 및 클리닉 납품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소프트웨어	선정사유	주재국 정부 주도의 IT 산업 발전 및 한국기업의 소프트웨어 수출 증가
	시장동향	Oracle 등 글로벌기업 제품을 사용하나, 원조사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수출 증가
	경쟁동향	2017년 HS 코드 8523 수출 1위 한국 1,159만 달러, 2위 아랍에미리트 358만 달러, 3위 러시아 286만 달러 등
	진출방안	개발원조사업(ODA)을 활용한 진출
품목명 2		
의료관광	선정사유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 의료 수요 증가
	시장동향	중앙아 국가 중 카자흐스탄에 이어 높은 의료관광 수요 보유
	경쟁동향	2016년 우즈베크의 한국 방문 환자 수 전체 10위 기록(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러시아)
	진출방안	의료관광 에이전트, 병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및 환자 유치
품목명 3		
교육콘텐츠	선정사유	한국형 유치원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이러닝 콘텐츠 개발, 도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
	시장동향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나 역량이 높지 않으며 이러닝 분야는 국가 주도로 시장 도입 단계에 위치
	경쟁동향	-
	진출방안	정부기관, 공기업과의 협력사업 개발, 이러닝 콘텐츠 공동 개발, 기술 전수 등

① 전략산업 분야 전문 무역사절단 상담회 개최

- 산업분야 : 기계류, 보건·의료(의료기기, 의약품 등) 전문 사절단 유치
- 주요 내용 : 1:1 비즈니스 수출상담회 및 사후관리

② 국내 수출상담회·전시회 방한 바이어 유치(연중)

- 주요 내용 : 국내 상담회·전시회 참가 희망 우즈벡 바이어 발굴 및 방한 지원
- 참고사항 : 한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출 유망산업 분야*

* 서울국제식품전(식품), 대전국제농업기술전(농기계), GTT·KOAA Show(자동차부품) 등

③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연중)

- 주요 내용 : 국내 중소기업(한국)과 바이어(우즈벡) 간 원격 화상상담 주선
- 참고사항 : 바잉오퍼(인콰이어리) 발굴과 연계, 신규 수출기업 등 중점 지원

* 본사 협업 및 무역관 자체 기획 등, 연간 주기적으로 시행

④ 「중앙아시아 플랜트 수주 지원센터」 운영(연중)(KOTRA 타슈켄트무역관)

- 주요 내용 : 중앙아 5개국 관할,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 세부사업 : 현지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발굴, 시장조사 등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이슬람협력기구(OIC) 제2차 과학기술 정상회의	2020년 중	시기 미정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담	2020년 중	시기 미정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20개국 대상 추가 비자면제 시행	2020.1.1	
토지사유화법 발효	2020.3.1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제15회 농업전시회 AgroWorld Uzbekistan 2020	2020.3.11 ~ 13	UzExpoCentre
제20회 국제 식품 및 음료전시회 UzFood 2020	2020.4.1 ~ 3	"
제15회 국제 제약전시회 TECHPHARM 2020	2020.4.21 ~ 23	"
제24회 석유가스전시회 Oil&Gas Uzbekistan 2020	2020.5.13 ~ 15	"
제9회 공기조화&수자원&환경전시회 AQUATHERM 2020	2020.9.22 ~ 24	"

I. 한-우즈베키스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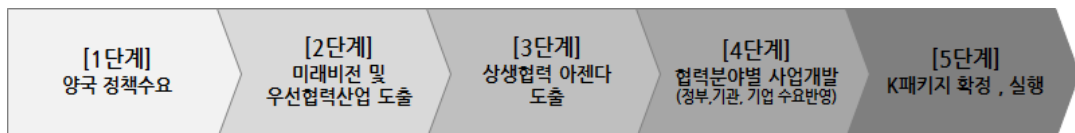
 우즈벡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노력에 힘입어 주요국은 다양한 분야와 방식으로 협력 확대

주요국의 대(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의 일부로 지역 내 철도·도로 건설 인프라 적극 참여 • 3개 주요 천연가스관을 통해 투르크멘 천연가스 수출의 80% 점유 • 우즈벡 내 주요 원유광구의 지분 확보로 원유공급 안정화 추진 • 우즈벡 등 경제특구에 민간기업 진출 활성화로 제조업 협력 강화
일본	• ‘중아시아+일본’ 이니셔티브 창설 및 일본의 지역협력 매개 역할(2004.8) * 매년 중앙아 각국이 공유하는 직면 과제들에 대한 공동논의 및 회담 • 우즈벡에 대한 대규모 ODA 자금지원 확대 지속
러시아	• 러시아 ‘대유라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적 포용력 확대 • 자원개발 부문에 러시아 기업들의 적극 참여 → Gazprom, Lukoil 등 러시아기업들은 다운스트림 분야에 투자진출 활발 • EAEU 회원국 확대 추진, 러시아 경제권 편입 및 영향력 확대

나. 한-우즈베키스탄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보다 체계적이고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개발 필요



* 우즈벡의 니즈와(수요 측면)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중앙아시아는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조업을 육성하여 산업기반을 다각화하는 정책 추진

우즈베키스탄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기계장비	농업 및 농식품	◆ 제조업 역량 강화 - 자원 의존도 경감 및 산업 다변화 지원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에너지 개발 및 효율화, 교통·물류분야 등
에너지·인프라	섬유	◆ 4차 산업 분야 협력 - ICT, 전자 DB 구축, 디지털 기반 인프라 등
ICT	교통·물류	◆ 장기발전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 기술이전 및 기반구축

* 자료 : 산업부 보도자료 및 KSP 홈페이지(ksp.go.kr)를 참고하여 무역관 작성

우즈베키스탄의 권역별 협력 수요

국가	내용
CIS	-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수출 증가 집중 - EAEU 내의 협력 심화와 가입국 확대 가능성 - 러시아 기업의 중앙아시아 내 에너지 투자 확대
중국	- 일대일로로 추진국으로서 철도 등 인프라 개발 협력 - 중국 제조업의 중앙아시아 내 투자 강화 희망 - 자국 내 에너지 개발에서 중국기업의 역할 강화
터키	- 중앙아-터키 간 상호 교역 증대 - 중앙아시아 건설 시장에서 터키기업의 참여 확대
EU	EU 에너지 시장에 대한 중앙아 국가 수출 증대



우리나라도 유라시아 시장 진출 핵심 지역인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 추진 필요

* 정부, 기관, 기업단계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G2G, B2G, B2B 협력전략 부재

(최근 양국 G2G 레벨 회담에서의 주요 협력논의 분야) (카) 인프라, 기술 R&D, 보건의료, 문화교류 등 (우) FTA, 물류인프라, 보건의료 (투) 에너지, 농·어업, 문화관광 등

우즈베키스탄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¹⁾		구체적인 역량
기계장비	농업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 보유 - KSP, 한류 등
에너지·인프라	섬유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 세계 상위권
ICT	소비재(화장품)	◆ 전통적 ICT 강국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6)
		◆ 높은 전문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1) 양국 정부정책, 기업 수요(설문), SDG 분석, 한국 무역역량과 중앙아시아 시장성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산업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① [G2G] KSP·ODA를 활용한 협력 수요 발굴

- (정책 수요) 우즈베크는 한국으로부터 경제정책 수립, 농업, 신재생에너지, 섬유, 정보 시스템 등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KSP 수요 지속

* 우즈베크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에 대한 수요가 크며 특히 특정 산업발전 분야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함

2014년 이후 대(對)우즈베키스탄 KSP 수행 내용

연도	사업명	세부내용
2014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현안 분석	•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부문에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과학기술정보법령 체계,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 도입
2015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현안 분석	•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의 발전방안 마련 : 나보이 경제자유 구역 활성화 및 수출 확대 방안, 보건예산 집행절차 개선 및 효율성 증대, 연구 분야 역량 확대를 위한 석·박사 과정 강화 방안 등
2016	우즈베키스탄 공공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 공공행정 아카데미의 역량 강화 방안, 표준원가에 기반한 재원조달 개선 및 공공병원 의료 서비스 발전방안, 거시경제 전망 및 관리 정책의 현대화 방안
2016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방안	•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FDI 유치 및 인프라 구성, 밸류체인 구성방안 연구
2016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도입 기본계획 수립	• 우즈베키스탄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자단말기 도입계획 수립 등 연구

* 자료 : KSP 홈페이지(ksp.go.kr)

- (추진 방향) 우즈베크 정부와의 신산업 부문에 대한 KSP 어젠다 선정 및 협력방안 마련으로 우리 기업 진출의 초석 마련

- 전통적인 산업육성 이외에 신산업 발전을 정부 차원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어 새로운 KSP 협력 과제로 신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 필요

* 우즈베크 정부는 디지털산업, 정보·보안기술 육성을 경제성장의 주요 과제로 선정

② [B2B] 보건·의료산업 협력

- (우즈베크 수요) 우즈베키스탄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의료 서비스 수요 및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성장성 다대

- (전문인력 부족) 국내 전문 의료인력 및 기관 부족으로 자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 가중 및 정부 차원의 의료 시스템 개선정책 지속

* (2017~2021년 국가 Healthcare Reform Program 운영) 우즈베키스탄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통합하여 국민 보건복지 부문의 질적 향상 도모

- (의료 격차와 장비 노후화) 도시와 지방 간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크고, 의료기기 노후화로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
 - * 종합병원 수준의 국립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수도인 타슈켄트에 집중
- (국민 관심 증대) 생활환경 개선 및 중산층 증가로 건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 개선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 (한국 역량 및 협력 필요성)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기반 확보 및 ICT 기반 의료기술 성장 가능성 다대
 - 한국은 우즈베크 보건의료 분야 개선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지난 수년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매년 심화

의료 관련 한-우즈베크 주요 협력 현황

- ◆ (2015년) 한국 보건복지부-우즈베크 보건부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
- ◆ (2017년) 양국 정상회담 중, 보건 분야 실질적 협력 증진 합의
- ◆ (2018년) 한국 경제부총리 우즈베크 방문 시, 우즈베크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MOU 체결, 보건 전문관 파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사업 착수를 위한 MOU 체결 추진

- 현재는 무상지원 형태로 진출하는 형태가 다수이나 장기적으로 직접 진출을 통해 시장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 필요
 - * 과거의 의료인 연수 중심의 협력에서 ICT 의료기술 확산, 제약·의료기기 산업 진출, 한국형 의료 시스템 확산 필요

- ☞ (한국 진출사례) 아리랑 요양원(우즈베크) : 정부지원 연계
 - (진출내용)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개원하였으며 우즈베크 정부에서 무상으로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한국 보건복지부가 운영지원
 - 요양시설, 중환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려인 1세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

3 [B2B] ICT 협력

- (우즈베크 수요) 정부 추진 주요 국정과제로 디지털 경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반 산업인 ICT 산업의 육성 의지 큼
 - 우즈베크 정부는 '2017~2021년 우즈베크 경제발전 시행전략'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개선을 위해 ICT·IoT 기술의 적극 도입 추진
 - 우즈베크 정부는 수도인 타슈켄트 남쪽으로 약 20km 거리에 위치한 '토이테파(Toytepa)'市를 우즈베크 최초의 Smart City 시범도시로 건설 추진
 - * 2025년까지 20억 달러를 투입하여 IoT 기능이 접목된 기반시설 구축 예정

-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청(National Agency of Project Management)'을 설립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과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갖고 시행

*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보안 등 관련 기술 발전 필요
→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화폐 발전을 중요 추진과제로 선정

우즈벡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디지털 경제 발전 주요 방향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8.7.3.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에 서명하고 향후 디지털 경제 발전을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을 것임을 천명
-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할 사업은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분야로 암호화폐 채굴, 스마트 계약서 작성, 디지털 정보 교환, 스토리지, 정보 분배 시스템, 클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기술 등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야를 망라

- (한국 강점) 한국은 디지털 경제 구현을 위한 통신망 구축, 보안 등의 ICT 분야에서 기술우위를 갖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역량 보유

* 타슈켄트시 핵심 업무권역 재개발 사업에 포스코건설 40억 달러 JV 협정체결 검토 중

-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가능한 응용기술 보유

ICT 관련 한-우즈벡 정부 간 주요 협력 현황

- ◆ 우즈벡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요청(2012년 9월)에 따라 '한-우 IT 협력센터' 개소 및 지원사업 실시
 - * (1년차) 타슈켄트 정보통신대 교수 한국 연수사업, 우즈벡 텔레콤 BPR·단일 DB 구축지침 마련 등
 - * (2년차) 업무 프로세스 관리 모델 연구, 전자정부 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등
 - * (3년차) 전자정부 역량 강화 연수,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등

- (유망 분야) 최근 정부의 정책 우선분야인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블록체인·보안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파급효과 큼

- (디지털 인프라 개선) 우즈벡 정부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장비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

* '2013~2020년 국가 정보통신 종합 프로그램'을 시행 중으로 전반적인 정보통신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 요인 큼

- (블록체인·보안기술) 우즈벡 정부의 중점 육성 추진 분야이며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 수혜 분야

* 우즈베키스탄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5년간 약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주로 가전, 의류·신발, 뷰티 용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

한-우즈벡 우선 협력분야

① 디지털 인프라	② 블록체인·보안기술
•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정책의 지속에 따라 시장규모 확대 및 협력 가능성 큼 • 향후 4G·LTE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에 따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우즈벡 정부 주도의 기술 발전, 인력육성 등 정책이 집중되는 수혜 분야로 수요 폭증 • 전자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암호화, 보안기술 수요 확대

- (협력방안) 공동 R&D를 통해 기술적 기반을 공유하는 방식의 기술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기반 마련
- － (참여주체) [韓] 정보통신진흥원, 디지털 인프라 관련 기업*, 인터넷 보안 전문기업**, [우] 정부 부처, NAPM 등
 - *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디지털 인프라 관련 기업 등
 - ** 에스이웍스, 안랩, 파수닷컴 등

한국기업 진출사례

- (KINET)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 산하 무역기업인 Uztrade, 한국무역협회(KITA)와 3자간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우즈벡 정보통신 시장에 본격 진출. KITA의 트레이드 마켓플레이스인 'trade Korea'와 KINET의 트레이드 포털인 'uTradeHub'를 기본 포맷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디지털 전자상거래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
 - ☞ 국내 수출기업의 데이터베이스 제공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

Ⅲ. 향후 對우즈베키스탄 K패키지 실행체계(안)

우즈베키스탄				
1	{G2G} 우즈벡 정부 신산업 협력과제 발굴	KSP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개발부
			KOTRA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KSP 과제 수행을 통해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신산업 육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한국과의 장기적이고 실용적인 협력과제 발굴	
2	{B2B} 보건의료산업 현대화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부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 연합회
			우즈벡 보건의료산업의 현대화와 관련해 한국 의료 시스템 전파 및 한국산 의료장비의 진출 여건 개선	
3	{B2B} 제약산업 진출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부
			보건산업진흥원, JW 중외제약 등	우즈벡 제약산업협회
			우즈벡 정부의 주력 육성산업 가운데 하나인 제약부문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우즈벡 제약산업에 대한 시장 선점 모색	
4	{B2B} 디지털 인프라 구축	ICT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KOTRA, 정보통신진흥원, KT, SK	NAPM(국가프로젝트 관리청)
			디지털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	
5	{B2B} 블록체인· 보안기술 협력	ICT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KOTRA, 정보통신진흥원, 에스이웍스, 안랩, 파수닷컴	NAPM(국가프로젝트 관리청)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따라, 암호화, 보안기술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한 협력 수요에 대응한 우리 보안기업의 진출 가능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오기찬	과장	타슈켄트무역관	+998-78-140-0216	kichan@kotra.or.kr
2	안승훈	과장	타슈켄트무역관	+998-78-140-0216	seunghun@kotra.or.kr

KOTRA자료 20-088

2020 국별 진출전략 우즈베키스탄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34-7(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